

눈길에 산발자극을 뒤돌아보며 ...

김정수 (Kim Jeong Su)
(주)환경디자인 아트에 대표이사
청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e-mail : larte@ch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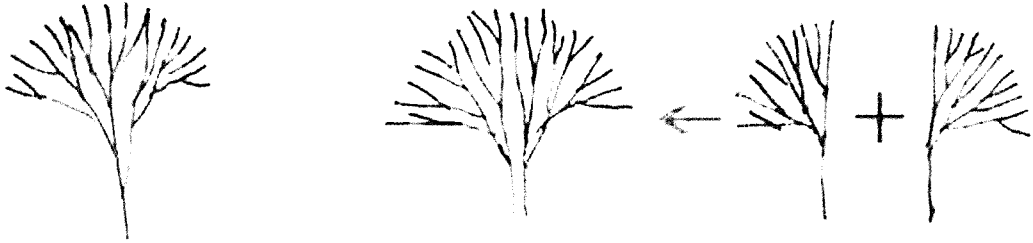
‘나무 없는 조경은 있을 수 없다.’ 수십년전 조경설계 시간에 가르침을 주시던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며 묘한 반발감에 나무가 없어도 되는 조경계획을 숙제로 내거나 실제 그런 것에 오히려 관심을 두었습니다. 물론 나무나 수목이 존재하지 않는 조경공간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공간에서 수목을 배제하고 조경계획이나 시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을 조경설계를 하고 때론 시공현장에서 종사하며 수목의 가치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했던 것을 수목을 기르고 생산 판매하는 조경수협회 회원분들께 의견을 표하고자합니다.

이 의견이 조경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첫 번째는 다양한 소재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형화된 규격의 생산도 필요하지만 부정형이나 특수한 형태의 수목생산도 필요합니다. 식재계획 시 가로수나 기념 식수 같은 정형화된 수목도 필요하지만 모아심기나 다층구조식재 등 자연스러운 식재방법이 필요한바 그에 맞는 형태의 수목도 판매하고 그에 따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한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기보다 두 그루의 나무를 모아 심을 때 경관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나무는 밀식된 수목의 가장가지에서 반쪽형태의 수목을 골라 2~3그루를 모아심어 보다 풍성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올바른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시공자는 이런 형태의 수목을 구하느라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예 밀식된 밭에서 2~3그루 또는 3~4그루를 조합하여 길러내 몇년 후 하나의 커다란 나무로 팔수 있지 않을까요.

부정형의 나무라고 폐기하거나 헐값에 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 그 가치를 더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의 활용은 낙엽수뿐만 아니라 소나무, 전나무 등의 상록수, 화목(花木)등 다양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경수목의 다품종화가 필요합니다. 지피식물이나 자생초화류처럼 더 다양한 수종이 개발되어 시장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목의 생산이 기간은 길지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조경수목화하면 수년, 십수년 후 가치를 발휘 것입니다. 조경수 협회지 No. 113에서 소개된 원추형 은행나무의 개발처럼 기존의 조경용수 중에서도 기본형태와 다른 또 다른 형태로 개발가능할 것입니다.

... 두 번째는 교육의 부실로 인한 문제를 조경업체 모두가 같이 했으면 합니다.

화투는 각각의 계절에 따라 월을 상징하는 고유의 수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1월에는 소나무, 2월에는 매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4월의 흑싸리는 사실 등나무입니다. 풍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오동나무이며 오동나무에서 풍이 유래되었지요. 당연히 오동나무와 함께 그려진 새는 닭이 아닌 봉황입니다.) 화투속의 수목이름을 모두 알고 있거나 말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더라도 화투놀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경가에게는 수목의 이름, 특징, 생육조건 등 수목 고유의 특성을 무시하고 계획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이해도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 관심과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경설계는 수목 없이도 가능하지만 자연소재인 수목의 활용도에 따라 공간의 활용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목은 장식품이 아닌데 장식적 요소나 형태적 해석으로 계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목의 형태나 모양에만 집중해 쉽게 계획을 하게 되는 이유는 또 다른 교육의 부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의 대학교육은 수목의 중요성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없었습니다. 전공필수는 물론 토양, 기후, 식물, 미학 등 연관 분야까지 폭넓고 깊게 교육하여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습득을 하였으나 지금의 교육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중요 과목이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바뀌었고 중요과목에 대한 선택마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렵다는 이유로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조경설계나 수목에 대한 공부 없이 규정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면서 쉬운 과목을 선택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전공과목은 학점이거나 학습을 하지 않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수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채 조경업에 종사하다보니 수목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물론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한 채 계획이나 설계시 편향적일만큼 기본적인 수준에 치우치게 되고 간신히 알게된 수목의 이름과 형태로 수목을 결정짓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대학 교육정책의 오류로 빚어진 결과이며 폭넓은 선택에 따른 부실로 필수과목이 사라지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목은 회피하고 편한 과목만 선택한 결과입니다.

초기의 조경업계는 수목의 생산, 설계, 시공이 세분화되지 않고 설계, 시공을 대부분 병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설계나 시공상의 오류가 자체적으로 Feed Back되어 재교육의 형태를 띠며 보완 되었습니다. 조경업이 발전하면서 시설, 식재, 생산, 설계, 감리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업계가 공유하던 자료와 정보가 세분화됨으로 인해 서로 단절되어 상호보완으로 오류를 줄이고 재교육되던 기회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수목시장의 다양한 정보나 자연스러운 재교육 기회가 사라져 단편적 지식으로 수목의 형태에 치중한 디자인이 반복되고 기교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목의 생산과 설계분야의 교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의 공유로 새로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수목선택의 오류개선의 장이 필요합니다. 조경수협회가 주관하는 초급전문가를 위한 조경학교 형태의 재교육장 같은 것 말입니다.

*** 세 번째는 위와 같은 교육의 부실에 대한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실무에 종사하며 식재에 관한 내용을 대학에서 교육하다보니 실습이라고 이른바 야외학습을 하게 되는데 주로 교정에서 하게 됩니다. 다양한 수종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학교 내에 있는 수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나마 수목이나 식재설계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일반수목이나 특수한 희귀수목이 아닌 조경용수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것입니다.

수목학습의 장이 없어 학교이외의 인근 공원이나 때론 수목원에 가지만 공원 내에서 다양한 수목을 접할 수 없고 수목원은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 수종이 아닌 특수한 수종이 많아 원활한 교육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 및 기후특성을 고려한 학습의 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부권, 남부권 등으로 구분되거나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남해 등 조경용수 학습원이 조성되어 인접대학교와 학습, 교류의 장 역할과 생산의 장이되면 좋겠지요.

갓 밷어낸 술보다 오랫동안 잘 숙성된 술이 가치를 더합니다. 이제 장년기에 접어든 조경이 설계, 시공, 생산 등 각 영역에서 빛을 더 발할 때입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내 분야가 아니라고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때입니다. 🌿